

2020년 1월 상반기 안산시 공공도서관 성인 추천도서

이달의 주제: 『ADIEU 2019, WELCOME 2020!』

도서명	저자/출판사	소장도서관	책 소 개
	노석미 / 난다	중앙 감골 부곡 반월 신길작은	[매우 초록] 40대의 고트머리에 선 한 사람이 들려주는 이야기! 서울을 떠나 양평이라는 땅을 찾고 그 땅에 새 집이면서 내 집을 짓는 과정 속에 만나게 된 정원, 밭, 동물들, 사람들,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잊게 하는 길의 기록을 모두 수록하였다. 창밖에 언제나 생경한, 내 것일 수 없는, 그래서 항상 신비로운 초록, 자연이 있음을 이야기하며 그것을 보고, 느끼고, 쓰고, 그리는 자신의 삶을 생생하게 기록해냈다.
	라문숙 / 은행나무	중앙 성포 수암 반월 신길작은	[깊이에 눈뜨는 시간] 나이 든다는 건 때때로 쓸쓸하지만 사소한 즐거움을 잃지 않는 한 삶은 다시 채워지고, 다정해지며, 더 그윽해진다 중년 여성의 존재 의식과 마음의 풍경을 담은 사유 에세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기다움을 잃지 않고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누구의 딸이 아닌 그저 나 자신으로, 자기 방식으로 충실하게 살고 싶은 여성들이라면 일상을 다정하게 보듬고, 더 그윽한 존재로 거듭나는 방법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기시미 이치로 / 다산초당	중앙 감골 관산 성포 단원어린이 부곡 원고잔 본오 수암 선부 대부 반월 당곡	[마흔에게] 노년에 접어들었다고 해서 힘들고 괴로운 일만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 주어진 노년을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해보기를 권한다. 나이 듦의 가치를 인정하고 해보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일에 도전하거나 전혀 새로운 세계에 뛰어들어 보는 것을 추천하면서, 지금을 사는 행복과 나이 들어서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힘을 전한다.
	한창욱 / 다연	원고잔 반월 신길작은	[인생을 어떻게 살면 좋겠냐고 묻는 딸에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 상황에 부딪히기 마련이다. 어떤 것들은 명확하게 행복과 불행으로 나뉘지만, 대개는 혼재되어 있다. 책 속의 아빠는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말고 행복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한다. 딸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만들고 이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마사 누스바움 / 오픈하우스	중앙 감골 관산 성포 미디어 일동 원고잔 본오 수암 선부 대부 반월 달미 신길	[지혜롭게 나이 든다는 것] 우정, 나이 들어가는 몸, 적절한 은퇴 시기, 나의 과거 등을 함께 생각하고, 은퇴하기 적합한 시점은 언제인지, 유산을 어떻게 적절하게 나눠줄 수 있을지 등 보다 실용적인 삶의 지침을 전한다. 또 노년의 경제적 불평등과 노인빈곤, 노인혐오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우리가 떠난 후에도 계속될 세상에 우리는 무엇으로 기여할 것인지를 물으며 나를 돌보는 것을 넘어 타인과 세상을 함께 돌보게 한다.